

LOCAL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장성 (주)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 추진된다

나주, 도심형 생활문화 축제
28일 하이볼·비어 페스티벌

나주시가 여름의 끝자락을 도심형 생활 문화 축제로 물들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부터 빛가람로 696 일원에서 ‘2025 나주시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빛가람혁신도시상가변영외 주관한 이번 축제는 하이볼과 맥주 시음 행사, DJ 공연, 먹거리와 플라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는 지역 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이볼·맥주 시음 행사는 각 500잔을 무료 제공한 뒤 소진 이후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올해는 아와 테이블존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공연 무대에는 개성 있는 무대로 청년 세대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DJ ‘뉴진스남’이 출연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댄스 챌린지, 음악 퀴즈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나주=조현천 기자

순천 ‘속박세일페스타’

숙박비 최대 5만원 할인

순천시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에 참여해 최대 5만원의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숙박세일페스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순천은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등 사계절 매력이 살아있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9월 열리는 세계유산축전과 10월 개최되는 올텐가 축제도 예정돼 있다. 순천시는 가을철 여색과 갈매의 장관, 주요 축제, 숙박 할인 혜택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류형 관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7만원 이상 숙박 시 5만원, 7만원 미만 숙박 시 3만원이 할인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할인율과 비교하면, 순천·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 큰 폭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운영하는 ‘남도 숙박할인 BIC 이벤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군, (주)석세스뱅크장성·LS일렉트릭 등과 업무협약 체결

김한중 군수 “데이터센터 조성 첫걸음…동반성장 기대”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주)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주), LS사우타(주)와 장성 건동광산 부지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전재연 (주)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주)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기술 지원 △건동광산 기부채납 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도 아까지 않을 방침이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주)동성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장성군은 최근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길이 221m, 길이 55km에 달하는 건동광산 지하 채굴장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면, 사계절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 냉각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높은 보안성은 물론, 각종 자

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군의 구상대로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폐광을 활용한 첨단 데이터산업 중심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김한중 군수는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장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과 참여 기업이 동반 성장·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데이터센터 조성 외에도 관광산업 등 건동광산 활용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추후 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광양-린츠 익스체인지 그랜트’ 수상 작가 선정

한국 이진·오스트리아 틸 쉰베터 ‘그랜트’ 수상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GIMAF) 추진위원회는 “2025 광양-린츠 익스체인지 그랜트” 수상 작가로 한국의 이진 작가와 오스트리아의 틸 쉰베터 작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린츠 익스체인지 그랜트’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GIMAF(총감독 방우송)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위원회가 각각 8개씩 총 16개 작품을 엄선해 공동 심사위원단이 심사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1명의 수상작가가 선정됐다.

한국 수상자인 이진 작가의 ‘Liminal Ring’은 ‘경계’와 ‘전환’을 탐구하는 몰입형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디지털과 물리



한국 이진 작가의 작품 ‘Liminal Ring’

적 현실 사이의 경계를 사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수상자인 틸 쉰베터 작가의 ‘Post-Eden, Generative Agents in a Dynamic Environment’는 생성형 에이전트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자연 개념을 새롭게 구성한 실험적 작업으로, 독창성과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두 수상작가는 다음달 3

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개막전 ‘광양-린츠 익스체인지(Gwangyang-Linz Exchanges)’ 행사에서 광양시장과 린츠시장으로부터 직접 그랜트를 수상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양국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미디어아트 인제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양을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된 두 작품은 다음달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과 오는 10월 광양에서 개최되는 2025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 전시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목포시는 (주)카카오, (사)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개 전통시장 상인회, 원도심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 카카오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박차’

카카오톡 활용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 협약

목포시가 (주)카카오와 전통시장, 원도심 골목상점의 디지털 활성화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카카오, (사)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개 전통시장 상인회, 원도심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홍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상인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1대 1 맞춤 교육, 점포당 30만원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지역 축제장과 연계한 카카오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는 목포9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맛의 도시이자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협약기관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플랫폼에 진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 대상자인 전통시장 3곳과 원도심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 수는 총 753개소로, 다음달부터 서비스 희망 점포 신청을 받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